

1) 순천공립보통학교

일제는 1905년에 공포한 사립학교령에 의해 민족사학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강화하면서 보통학교로의 공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족사학들이 이러한 탄압 때문에 1908년부터 1920년 사이에 폐교되거나 공립화되었다. 순천공립보통학교도 1906년에 설립된 사립 승평학교가 1911년 11월에 공립으로 개편된 것이다. 1926년 5월 군수 오석유, 교장 삼포용(三浦勇) 등의 노력으로 지방유지들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 저전리(현재 저전동)로 이전하였다. 교사 210평의 2층 건물, 26평의 평옥, 실습지 8,000평, 운동장 1만 평의 부지를 갖게 되었다. 수업연한 4년제가 6년제로 된 것은 1921년이었다. 초대 교장에 박승휘가 취임하였다.

1929년 3월에는 학교경영과 학교설비가 양호하여 전라남도 표창규정에 의거, 제1회 우량학교로 표창을 받았다. 1932년에는 당교 장학회장 김봉각를 비롯하여 장효원·김학순·김형남·노재승 등 많은 지방유지들이 모여 학교를 후원하기 위해 장학회를 창립하였고, 그후 날로 발전하였다. 당시 교직원의 구성을 보면 한국인 교사는 남자 9명, 여자 3명이며 일본인 교사는 남자 4명, 여자 3명으로 총 19명이었다. 학력은 한국 및 일본의 사범학교 출신이거나 사범학교 연습과와 강습과 출신이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순천남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고, 1941년에는 순천남공립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수업연한이 4년제였던 1919년 학적부에 표시된 교과목은 수신·국어(일어)·조선어·산술·이과·도화·체조·창가·농업이었고, 수업연한이 6년제인 1922년의 학적부에는 4년제의 교과에 5학년과 6학년의 일본역사와 지리 두 교과가 부과되었을 뿐 교과과정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보통학교의 고학년에 일본역사와 지리를 편성하여 역사교육을 통한 일본화·황민화 교육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천공립보통학교에 부설된 학교로는 1917년에 순천공립간이농업학교(수업연한 1년)가 개설되었으나, 1920년에 폐교되었다. 1926년 10월에 보습과(수업연한 2년)를 설치하였고, 1938년 3월에 폐지하였다. 1937년 7월에는 승주간이학교(수업연한 2년)를 부설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매산학교가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당하였기 때문에 이 학교아동을 수용하여 2부제 수업을 하였다. 1941년에는 고등과(수업연한 2년) 설치인가를 받았다. 1943년에는 부설 승주간이학교를 순천서공립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1933년에 발간된 자료에서 순천공립보통학교의 학년별·성별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933년 순천공립보통학교 학생현황

(단위: 명)

학년별 성 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남	136	109	130	113	129	101	718
여	66	66	67	60	58	40	357
계	202	175	197	173	187	141	1,075

출전: 片岡謙, 『순천군지부』, 허수·순천·보성·화순·광주·남평 발전사, 1933, 229쪽.

일제는 초등교육기관인 공립보통학교를 기간학제 중에서 식민지 교육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근간으로 삼고, 이를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다루면서 면밀한 확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는 공립보통학교가 내선일체의 철저한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일본어를 보급하고 친일화하여 황국신민화로 개조시킬 수 있는 식민지 교육의 첫 관문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공립보통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은 친일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식민지 교육의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었다.

이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교사들의 식민주의 교육관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보통학교·사립학교 그리고 서당의 교사들이 연합하여 교육을 연구한다는 미명 아래 교육연구회를 조직하도록 하여 친일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을 강화시켜 나갔다. 전남지역에서도 광주·목포·순천 방면을 중심으로 교육연구회가 조직되어 1년에 몇 회씩 교사들에게 동화교육을 위한 철저한 정신무장교육을 시켰다. 이러한 목적으로 1913년에 '순천교육연구회'가 결성되어 매년 춘추로 2회의 교육연구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전남교육연구회와 연합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교육연구회의 활동은 친일교육·동화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철저하게 주입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1910~1921년의 초등교육을 담당한 보통학교는 을사조약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았으나 오히려 수업연한은 3~4년으로 단축하였다. 교육과정은 수신·국어(일어)·조선어·한문·산술을 필수로 하고 이과·창가·체조·도화·수공(공작) 재봉·수예·농업초보·상업초보는 지역 형편에 따라 당분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보통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일본어는 주당 10시간이고 조선어 및 한문은 주당 6시간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일본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조선어를 자연히 말살케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므로 한일합병과 더불어 우리 국어의 말살정책을 실행해 나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일제는 보통학교 확충계획을 9면 1교 설립에서 시작하여 6면 1교 설립으로, 1920년에서 1925년까지는 소위 3면 1교 설치계획을 세우고 수업연한의 연장, 입학연령의 저하 등을 추진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1925년에서 1932년까지는 보통학교 1면 1교 설립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지만 세계적인 공황으로 성과가 부진하였다. 1932년부터 1935년 기간에 1면 1교 설치계획을 일단 완성시킨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1936년 이후 10년 동안은 더 적극적으로 초등교육기관 확충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

이러한 초등교육기관을 확충하게 된 속셈은 한국인에게 전쟁수행을 위한 전폭적인 협력을 강요하기 위한 대가로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적자원을 전쟁수행에 유효하게 부려먹기 위해서는 전쟁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이나마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일제가 한국인을 동화시키는 데 기초지식만을 터득시켜 빠른 시일에 황국신민으로서 충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이 증가하면 비판력이 증가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반항만이 증가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중학교의 확충은 담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시대 순천지역에 설립된 초등교육기관은 1910년대에는 3개 교, 1920년대에는 9개 교, 1930년대에는 9개 교, 1940년대에는 5개 교, 도합 26개 교였다. 식민지 교육정책은 1936년까지 1면 1교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순천지역은 원래 계획보다 앞서 1932년 2월에 1면 1교 설립이 완성되었다.

순천지역에 1911년 이후부터 1932년 사이 각 면에 설립된 공립보통학교는 다음 표와 같다.

1911~1932년 보통학교 설립현황

개교연도	소재지	설립 당시 학교명	현재 학교명	비 고
1911	순 천	순천공립심상고등소학교	순천성동초등학교	순천동국민학교
1911	순 천	순천공립보통학교	순천남초등학교	사립승평 공립화
1917	낙 안	낙안공립보통학교	낙안초등학교	
1920	황 전	황전공립보통학교	황전초등학교	
1921	주 압	광천공립보통학교	주암초등학교	
1922	별 량	별량공립보통학교	별량초등학교	
1923	송 광	송광공립보통학교	송광초등학교	
1924	쌍 압	쌍암공립보통학교	쌍암초등학교	
1925	서 면	동산공립보통학교	동산초등학교	
1927	외 서	외서공립보통학교	외서초등학교	
1927	해 룡	해룡공립보통학교	해룡초등학교	
1929	순 천	도사공립보통학교	도사초등학교	
1930	월 등	월등공립보통학교	월등초등학교	
1932	상 사	상사공립보통학교	상사초등학교	

일제는 공립보통학교에서 황민화 교육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을 학교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직업과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한국인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강조한 것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교육은 아동을 쉽게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저급의 산업기술인을 양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순천지역에 설립된 공립보통학교의 경우, 일본인 학교인 순천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서는 공업을 직업교육의 중요한 분야로 삼고 상업과 농업을 추가하였지만, 한국인의 공립보통학교에서는 농업을 주로 하였고, 학교별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농업에 공업과 상업이 적절하게 병행하였다.

1930년 당시 순천군을 비롯한 14개 면의 한국인의 호수는 2만 1,801호, 인구는 11만 4,588명, 공립학교 10개 교의 학생수는 2,240명, 학급수는 52개 학급이었다. 1930년에 조사된 10개 학교의 교직원, 학생수 및 학급수는 다음과 같다.¹⁾

1930년 보통학교 직원 및 학생수현황

1) 染川覺太郎, 『順天郡之部』, 『全南事情誌』下, 전라남도사정기간행회, 1930, 590~593쪽.

학 교	구 분		계	학 생 수		계	수업연한 (학급수)
	일본인	한국인		남 자	여 자		
순천공립심상고등소학교	5	-	5	118	71	189	심상과6, 고등과2 (6)
순천공립보통학교	9	11	20	665	295	960	6(18)
낙안공립보통학교	3	4	7	219	41	260	6(7)
황전공립보통학교	1	2	3	100	-	100	6(3)
광천공립보통학교	1	2	3	125	10	135	6(3)
별량공립보통학교	1	2	3	131	8	139	6(3)
송광공립보통학교	1	2	3	85	10	95	6(3)
쌍암공립보통학교	1	3	4	118	17	135	4(4)
동산공립보통학교	2	1	3	113	11	124	4(3)
외서공립보통학교	-	2	2	92	11	103	4(2)
계	24	29	53	1,766	474	2,240	(52)

일제는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식민지 통치방법을 문화정책으로 바꾸었다. 제2차 교육령은 겉으로는 일본의 학제와 한국인을 위한 학제를 비슷하게 해놓고 교육적인 차별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을 표방했을 뿐이고, 일종의 회유를 통한 복종을 요구한 것으로 문화적인 식민정책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역사·일본지리를 신설하여 동화교육에 역점을 두는 반면, 조선어를 상급학교 입시교과에서 배제함으로써 우리 국어의 말살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일제의 보통학교 설립계획은 문화정책의 실현이라고 하지만 그 목적하는 바는 전연 딴 곳에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제국주의는 동북아시아 대륙침략으로 인하여 초래된 농업공황을 타개하려고 '농촌진흥', '자력갱생'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에서의 식민지 산업의 수요와 확충을 위해서 다수의 한국인 산업보조원과 초등교육을 받은 정도의 피사역인이 필요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등학교를 확장한 것이다. 그와 같은 농촌정책의 일환과 동화교육정책으로 나타난 것이 1934년부터 시작된 간이학교의 신설이다.

1934년부터 1942년까지는 농어촌 오지까지 간이학교를 확대하였고, 1943년부터 1946년까지는 의무교육의 시행을 목표로 하였다. 전국 통계에 따르면 1934년에는 학교수가 440개였으나 1936년에는 880개로 2년 동안에 2배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일제가 교육정책으로 간이학교의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이학교는 2년제의 단기학교로 교사는 1명이었고, 교과목은 한국어·일본어·산술 그리고 직업이었으며, 도시간이학교와 농촌간이학교 두 종류가 있었다.

1933~1945년 보통학교 및 간이학교 설립현황

개교연도	소재지	설립 당시 학교명	현재 학교명	비 고
1935	쌍 압	쌍암공립보통학교부설 남강간이학교	승주초등학교 죽학분교	1943년 쌍암남국민학교
1937	해 룡	해룡공립보통학교부설 하상간이학교	해룡남초등학교	
1937	순 천	순천공립보통학교부설 승주간이학교	순천중앙초등학교	1943년 순천서공립국민학교
1938	상 사	상사심상소학교부설 쌍지간이학교	상사서초등학교	1944년 상사서국민학교
1939	낙 안	낙안심상소학교부설 평사간이학교	낙안북초등학교	
1939	순 천	순천심상소학교	순천북초등학교	
1939	이 읍	이읍심상소학교	이읍초등학교	
1941	주 압	창촌국민학교	창촌초등학교	
1941	황 전	황전북국민학교	황전북초등학교	
1941	송 산	송산국민학교	송산초등학교	
1943	별 량	별량남국민학교	별량남초등학교	
1945	서 면	서산국민학교	서산초등학교	

일제가 1934년부터 설립하기 시작한 간이학교는 순천지역에서는 1935년부터 시작되어 1939년까지 5개가 설립되었다. 1939년부터 1941년 심상소학교 명칭을 사용하던 시기까지 심상소학교가 3개 설립되었고,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한 1941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학교가 5개 설립되었다.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순천지역에 설립된 간이학교와 보통학교(심상소학교)는 앞의 표와 같다.

이 지역의 몇몇 보통학교에서는 입학아동의 증가로 교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당하자 뜻있는 독지가가 교사 증축비를 희사하였고, 배우고 싶으나 돈이 없어 배울 수 없는 극빈한 아동을 위해 야학을 열어 헌신적인 교육애를 보여준 미담이 있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5년 3월 주암공립보통학교는 3개의 교실을 가지고 있었으나 교실이 부족하여 몇 년 동안 복식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복식수업을 해결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주암면 김연수(金年秀)가 일금 1,000원을 교사 신축비로 희사하여 면민의 찬사를 받았다.(『태일신보』 1935. 3. 28.)

1935년 3월 별량공립보통학교는 매년 입학아동의 증가로 3개의 교실로는 도저히 아동을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새 교실을 증축하기로 하고 면민 전체가 7,000원의 교사 증축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면민의 생활도 어려운데 증축비까지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김재창(金再昌)이 교사 증축비의 반액을 자신이 부담하여 면민의 어려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었다.(『태일신보』 1935. 3. 12.)

1927년 9월 15일 송광면 낙수리 진흥회에서는 노동야학회를 창립하고, 송광공립보통학교 훈도 조병규(曹秉圭)가 박봉에도 불구하고 극빈아동 100여 명에게 학용품까지 부담하면서 일어·조선어·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애를 발휘하였다.(『태일신보』 1932. 5. 12.)

황전면 대사리에 사는 박례서(朴禮緒)는 1927년에 경성중앙고보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귀향한 후 농촌계몽과 극빈아동의 문맹퇴치에 뜻을 품고, 야학을 열어 극빈아동 50여 명을 열심히 가르쳐주었으며 학용품 일체도 부담하는 따뜻한 선행을 베풀어주었다.(『태일신보』 1927. 10. 21.)

낙안면 신기리에 사는 김병갑(金炳甲)은 낙안공립보통학교가 해가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이 부진한 점에 대해 주야로 생각하면서 학교발전을 염원하였다. 그러던 때에, 1932년 3월 제15회 졸업식 당일에 교장 송산의성(松山義盛)이 본교 6개년 계획 중의 하나로 동측 운동장 웅덩이매립사업에 대한 내용을 듣고 스스로 발기인이 되어 20원의 금품을 희사하고, 당일 졸업식에 참석한 유지들의 찬성을 얻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그는 평소에 교육에 대한 열성이 많고 학교발전에 공로가 지대하여 학교장의 표창을 받았다.²⁾

2) 片岡議, 『순천군지부』, 허수·순천·보성·화순·광주·남평 발전사, 1933, 35~54쪽.